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06호 2024년 11월 10일(나해)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모래주사(*Microphysogobio koreensis*)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7,10-16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히브리서 9,24-2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2,38-44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가난한 과부의 큰 헌금



가흥동 본당 주임
류성태 안드레아 신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은총 주시려 우리를 불러모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며 겉과 속이 다른(表裏不同) 그들을 단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율법학자들이 훗날 하느님 나라의 법정에서 엄한 선고를 받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의 헌금함을 보십니다. 그 헌금함 곁에는 사제들이 서서 봉헌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봉헌물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봉헌하는 재물과 돈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봉헌을 하는 중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이 과부는 오늘 독서에 나오는 엘리야 예언자 때 사렙타의 과부처럼 먹고 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헌금함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렙톤 두 닢을 집어넣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 ‘렙톤’이라는 단어는 보잘 것 없는 돈, 부자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돈을 가리킵니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손을 탈탈 털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봉헌을 많이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를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과부는 자기 자신은 가난하더라도 하느님만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셈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ANAWIM)의 딸이 어떻게 복음을 삶과 연결하여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전건립을 중에 있는 저에게 특별히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건립 후원을 받아 보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모은 정성을 아무도 모르게 봉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정말 개인적이면서 지극히 복음적인 봉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신 지향에 따라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면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였고 눈물을 삼킨 적도 많습니다. 그러한 미사와 기도 안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분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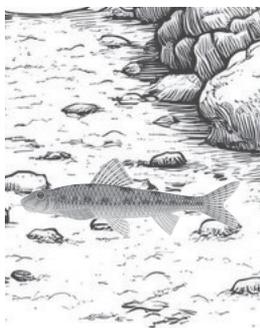
저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봉헌에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기에 그 마음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마음이 하느님의 은총이자 사랑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신앙과 정성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난한 과부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듯이 저 또한 하느님 안에서 성전건립을 위해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을 보며 복음의 정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0-34)는 그 말씀의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살아가며 좋은 일들, 복된 일들 많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김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지켜주세요 <모래주사>

표지 사진 설명



모래주사는 섬진강, 낙동강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하천 중·상류의 유속이 빠르고 자갈과 모래가 많은 바닥에 서식하며 주로 부착조류(수초)를 먹습니다. 몸길이는 약 10~12cm로 몸은 가늘고 길며 옆으로 약간 납작합니다. 입 가장자리에는 수염이 1쌍 있으며 몸 옆의 가운데에는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갈색의 작은 반점이 5~13개 배열되어 있습니다. 몸 옆 가운데에는 폭이 넓은 녹색색 세로줄이 있습니다.

모래주사는 먹이사슬 구조로 보면 가장 하층에 있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런 물고기들이 많아 하천은 풍성해지고 선순환이 이뤄집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하천의 물고기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교회의 기대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의성본당-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송규흠

오늘은 천일곱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널리 가 닿도록 노력하여야 할 영광스러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특히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 있는 도구이며 증인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230여 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신앙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들여왔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십자가로 지고 갔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당과 교구와 보편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노드에 참여하면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이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경청(傾聽)하였는지, 나아가 그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경청(敬聽)하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1코린 4,11) 있는 이들, 가난과 소외와 억눌림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하소연에 귀를 막지는 않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외면은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상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시련과 고통을 외면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해 가족과 이웃, 나아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복음 선포의 주체로서 평신도 사도직의 소임을 온전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곧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12월 24일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이 열리며 장엄하게 희년이 선포됩니다. 희년을 지내는 우리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병마와 싸우는 이들, 버림받은 노인들과 아이들, 자포자기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시련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조금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기름을 다 사용하여 하느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대접한 과부와 같은 마음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돈인 렵톤 두 닢을 하느님께 봉헌한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봉헌과 자선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희망의 순례길에 동참한다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평신도 사도이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전하는 징표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의 삶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맞아 하느님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속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갑니다.



<성 마티아 어린이집>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지구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1) 버려지는 비닐봉지들을 모은 후 이것을 재활용할 방법에 대해 토의해보았어요.
- 2) 토의 결과 비닐봉지 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실을 달아 주었더니 연이 되었어요.
- 3)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이동해 신나게 달리며 연을 날려 보았어요.



※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지켜요.'에서는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24년에는 매주 <안동교구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소수녀·선교사 모임

10월 22일(화)~ 23일(수)에 영덕에서 <공소수녀·선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연합회·청년연합회 사목방문

11월 1일(금)에 교구청에서 <대학생연합회·청년연합회 사목방문>이 있었습니다.



ME 사목방문

10월 24일(목)에 교구청에서 <ME 사목방문>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등반대회

11월 1일(금)에 영덕 블루로드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등반대회>가 있었습니다.



전례봉사자(제대회·전례꽃꽂이)교육

10월 26일(토)에 교구청에서 <전례봉사자(제대회·전례꽃꽂이)교육>이 있었습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4%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걱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농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셀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짬&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엘리마리

빙수 전문점
(콩고물, 카스테라, 망고, 초코, 딸기빙수)
김유경 엘리사벳 010-2831-8273
매봉 4길 14 (대동타운 아파트 앞)

가인 재가 복지 센터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노인주간보호
손순이 세라피나
상주시 무양 1길 46
T.054-535-8090

+ 교구 봉안 경당(납골당)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41
분양 및 예약, 묘지 이장 소개
위령미사- 매주 토요일 15시
T.054-655-1781, F.054-655-1782





교육

교구장 동정



11월 10일 견진(서문동)
 11월 12일 한일주교교류모임(14)
 11월 14일 사회복지시설장 회의
 11월 15일 성지순례사목위원회
 (천호성지)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11월 15일 권형배 알베르토 신부

기억합니다

11월 13일 문세화 베드로
 신부 21주기



교구

11월 열린성경강좌

일 시: 11. 11(월) 19:30~ 21:30
 장 소: 교구청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원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11. 17(주일) 10:30
 장 소: 가온본당 성유공소

2024년 교리교사의 날

일 시: 11. 17(주일) 9:30~ 18:00
 장 소: 세계기독교박물관, 용소막 성당,
 배론성지
 준비물: 간편한 복장과 텀블러(개인컵)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2. 6(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제 단 체

남성 제47차 꾸르실로

기 간: 1.9(목) 15:00~ 12(주일) 17:00 [3박 4일]
 장 소: 농은 수련원
 참가비: 1인당 160,000원
 추천 인원: 각 본당 2명 이내
 접수 기간: 12. 23(월)까지
 신청 자격: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신청서 참조)
 신청처: 본당 신부님, 꾸르실로 간사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영양 고춧가루 판매

보통맛: 1kg-38,000원, 매운맛: 1kg- 39,000원
 고추장용 보통맛: 1kg- 40,000원,
 매운맛: 1kg- 41,000원
 주문 전화: 010-3813-4405

제8회 안동가톨릭미술가회전

일 시: 11. 25(월)~ 12. 1(주일)
 장 소: 안동 시립박물관 별관전시실

수도회 · 피 정

생태교육 프라이어(PRIMER)

일 시: 11. 10(주일) 10:00~ 15:00
 장 소: 교육회 센터 공동의 집(안동 울세동)
 대 상: 생태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문 의: 010-9861-6691 정 M.막달레나수녀

토종씨앗 축제

일 시: 11. 11(월) 10:00~ 15:00
 장 소: 교육회 센터 공동의 집(안동 울세동)
 대 상: 토종씨앗에 관심있는 누구나
 문 의: 010-9861-6691 정 M.막달레나수녀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권 성소모임

일 시: 11. 16(토) 14:00
 장 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 의: 010-3800-1579

살레시오회 성소모임

대 상: 중1~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 의: 010-6221-3520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회

일 시: 매주 금요일 21:00~ 토요일 03:00
 강 사: 전국 유명강사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버 스: 조치원역 19:00 출발
 가 경 버스터미널 19:20 출발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월 금요일 20:00~ 01:00
 금요일 18:00~ 토요일 15:00 파견미사
 강 사: 김완식 요셉, 한연흠 심부님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기 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일 정: 1. 13(월)~ 1. 24(금)
 피 정 성모발현지/ 475만원
 1. 26(일)~ 2. 6(목)
 파티마,스페인,루르드/ 460만원
 3. 3(월)~ 3. 14(금)
 발칸반도(메주고레) /465만원
 3. 11(화)~ 3. 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문 의: 02-2281-9070 www.cttour.org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11. 8(금)~ 11. 22(금)
 7개 학부, 15개 모집학과
 주말반 학과 모집: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드론운용정비과
 야간 학과 모집: 경영과, 사회복지과,
 외식창업조리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 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노인상담기법 무료 교육

일 정: 11. 23(토), 12. 7(토) (총 2일 12시간)
 시 간: 09:00~ 17:30, 09:00~ 13:00
 내 용: 노인심리지원, 상담 기법 스킬 향상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영유아 문제 행동지도 전문가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11. 22(금), 23(토) 13:00~ 18:00
 (총 2일 10시간)
 내 용: 영유아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상호작용 모래놀이치료 실습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재직자 무료 교육 훈련과정 협의 문의 환영

생성형 AI 활용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12. 21(토), 28(토)/ 12. 22(일), 29(일)
 (각 2일 8시간)
 시 간: 09:00~ 13:00
 내 용: 생성형 AI(ChatGPT 등) 활용하기
 (SNS마케팅, 동영상, 이미지, PPT제작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 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 용: 가톨릭 신학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 접수: 11. 11(월)~ 2025. 2. 14(금)
 문 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